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영아에 대한 애착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검증*

채 진 영¹⁾

전북대학교 아동학과

박 유 정²⁾

부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지지가 조절할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생후 6-8개월의 영아를 자녀로 둔 J지역의 어머니 174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법을 사용해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영아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Pearson 적률상관분석과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Ping(1996)의 2단계 방식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어머니가 받는 사회적 지지는 각각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과 부적 상관관계가, 어머니가 받는 사회적 지지는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나, 양육스트레스가 적은 어머니일수록, 그리고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어머니일수록 영아에 대한 애착정도가 높았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이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영아에 대한 애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어머니가 받는 사회적 지지에 의해서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어린 영아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일상적인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에 대한 애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위한 사회적 지지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주요어 : 사회적 지지, 양육스트레스, 영아에 대한 애착, 조절효과

* 이 논문은 2016년 한국인간발달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논문을 확장한 것임.

1) 전북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겸 인간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및 Columbia University 방문교수

2) 교신저자 : 부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조교수 (E-mail: youjeongpark@pusan.ac.kr)

I. 서론

애착(attachment)이란, 선택적 대상에 대해 지속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으로(Bowlby, 1969), 연구자들은 오랫동안 부모와 영아 간의 애착 또는 결속감(parent-child connectedness)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왔다. 특히, 연구자들은 영아가 어머니에 대해 형성한 애착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영아의 애착을 예측하는 요인들과 영아의 애착이 일생에 걸쳐 사회, 인지, 정서 발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밝히고자 노력해 왔다(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2015; Bowlby, 1969; Braungart-Rieker, Garwood, Powers, & Wang, 2001; Bretherton, 1985; Coll, Vohr, Hoffman, & Oh, 1986; De Wolff & Van IJzendoorn, 1997).

그러나 애착은 부모-영아 간에 양방향으로 형성되며 부모와 영아 간에 서로 호혜성이 없이는 성립될 수 없다는 시각이 있다(황현주, 정옥분, 2006a, 2006b; Hinde, 1979; Stevenson-Hinde, 1990; van den Boom, 2001). 즉, 부모 역시 영아에 대해 애착을 형성하며, 영아에 대한 부모의 애착은 부모에 대한 영아의 애착 못지않게 이후 영아의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연구들은 어머니는 출산 후 수개월 동안 영아에 대한 애착(maternal bonding to infant)을 형성하며,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 정도에는 개인차가 존재함을 보였다(Feldman, Weller, Leckman, Kvint, & Eidelman, 1999; Moehler, Brunner, Wiebel, Reck, & Resch, 2006). 가령, 출산 후 4개월까지 어머니의 산후우울증은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유대감을 손상시켰지만,

산후 14개월 경 어머니의 산후우울증은 영아에 대한 유대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Moehler et al., 2006), 이는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 형성에 첫 1년이 매우 중요한 시기임을 시사한다. 또한,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은 영아를 돌보는 양육행동, 즉, 영아를 먹이고, 영아에게 말을 걸고, 영아와 직접 접촉을 하는 등의 행동들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Feldman et al., 1999; Leckman et al., 1999). 이는 동물행동학적-진화론적 관점에서 부모-영아 간의 애착은 생존을 타인에게 의지해야만 하는 영아의 생존율을 증가시키고 양육자로 하여금 책임감 있게 영아를 돌보고 영아에게 애정을 쏟으며 발달을 돕는 다양한 상호작용 행동을 하도록 하는 원동력이라고 보는 시각과 일치한다(van den Boom, 2001). 이와 같이, 어머니가 영아에 대해 형성하는 애착이 영아의 생존과 발달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요인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영아기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 연구는 매우 드물다. 더욱이, 기존의 연구들은 임신 중인 어머니가 태아에 대해 가지는 유대감이거나 출산 직후 어머니가 신생아에 대해 갖는 유대감에 관한 연구로 비교적 제한되어 있어(Wittkowski, Wieck, & Mann, 2007; Yoshida, Yamashita, Conroy, Marks, & Kumar, 2012), 신생아기 이후의 영아를 양육 중인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애착을 살펴본 연구들은 극히 드물다. 최근에 와서 중국, 터키, 아랍 국가들

과 같은 비서구권 국가를 중심으로 이 시기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 실정이며(Ding, Xu, Wang, Li, & Wang, 2012; Gharaibien & Hamlan, 2011; Çinar & Öztürk, 2014), 국내에서는 황현주와 정옥분(2006a)이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애착 척도를 타당화한 이후로 이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어 최근 어머니와 자녀 간의 양방향적 친밀감(mother-child closeness)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을 다룬 국내 선행연구들은 관련변인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 황현주와 정옥분(2006b)은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이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배우자의 지지, 그리고 영아의 기질과 서로 관련이 있으며, 어머니 자신의 모에 대한 애착안정성과도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이해영과 권민균(2007)은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배우자의 지지가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도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 중 일부 하위영역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한편, 유아기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 정도를 측정한 장영애와 박정희(2009)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 간에 높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나아가, 노지영과 황혜신(2012)은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과 관련변인들이 어떠한 영향관계에 있는지에 관한 인과적 모형 검증을 시도하여,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부담과 스트레스가 자녀와의 애착을 설명하는 강력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박희진과 문혁준(2013)은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이 가계소득이나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는 반면, 어머니의 우울과는 부적 관계가, 사회적 지지 및 양육효능감과는 정적 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특히 여러 연구에서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두 가지 어머니 관련 변인으로 양육스트레스(노지영, 황혜신, 2012; 장영애, 박정희, 2009)와 사회적 지지(박희진, 문혁준, 2013; 이해영, 권민균, 2007; 황현주, 정옥분, 2006b)가 도출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두 변인을 포함하는 인과적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양육스트레스(parenting stress)는 부모로서 요구되는 역할과 책임에 대한 부정적이고 회피적인 심리적 반응으로(Deater-Deckard, 1998), 여러 선행연구에서 양질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긍정적 발달결과를 방해하는 주요 위험요인으로 나타난 바 있다(Abidin, 1992; Anthony et al., 2005; Crnic, Gaze, & Hoffman, 2005; Crnic & Low, 2002; Feldman, Eidelman, & Rotenberg, 2004; Rodriguez & Green, 1997). 널리 사용되는 양육스트레스 척도(Parenting Stress Index, PSI)는 양육에 대한 전반적인 부정적 정서 이외에, 양육으로 인한 지나친 제약과 정서적 요구, 다른 아동에 비해 자신의 자녀가 덜 바람직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 등을 평가한다(Abidin, 1995).

그런데 이러한 양육스트레스가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인과적 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을 암시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먼저,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

자녀 간의 친밀함(mother-child closeness)과 부적 상관성이 있음을 보인 선행연구들이 있다. 구체적으로, 최근 실시된 한 종단연구에서 자녀가 15개월 영아일 때 어머니가 느끼는 양육스트레스는 자녀가 25개월일 때 측정한 어머니-자녀간 친밀함을 예측하였다(Harmeyer, Ispa, Palermo, & Carlo, 2016). 즉, 어머니에게 측정된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정서적 거리감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유아기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 정도를 측정한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애착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장영애, 박정희, 2009). 뿐만 아니라, 양육스트레스가 낮은 어머니는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용성(emotional availability)이 높고 자녀에 대한 묘사에서 긍정적인 심리특성을 더 많이 언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cMahon, & Meins, 2012). 마지막으로, 몇몇 연구자들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성(sensitivity)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그 결과 영아의 발달적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한 바 있다(Crnic & Low, 2002; Feldman, et al., 2004). 비록 어머니의 양육행동에서 나타나는 민감성이 어머니가 영아에 대해 가지는 애착과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부모-영아 간의 애착 형성 과정은 눈 맞추기, 긍정적 정서 표현, 영아 지향적 언어 사용, 애정적인 어루만짐 등 민감한 양육행동을 수반하며, 민감한 양육행동 및 영아에 대한 애착은 둘 다 옥시토신 호르몬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Feldman, 2012)를 고려할 때,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의 민감성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는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에 대한 애착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을 제기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영아기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은 어머니가 느끼는 양육스트레스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영아가 태어난 후 첫 1년간 영아기의 자녀를 둔 부모들 중 상당수는 여전히 부모역할로의 전이를 경험하는 중이며 영아 역시 여전히 부모의 지속적인 돌봄을 필요로 하므로 이 시기 자녀를 둔 어머니는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고, 그 결과 영아에 대한 애착에도 부정적 영향이 클 수 있다.

이처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에 대한 애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반면, 어머니에게 가용한 사회적 지지는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배우자의 지지는 영아를 둔 아버지의 애착에서 설명력이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황현주, 2012). 또한 전반적인 사회적 지지이든 배우자의 영아 양육에 대한 지지이든 상관없이, 사회적 지지가 많을수록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애착(maternal-infant bonding)이 높았다(Bicking Kinsey, Baptiste- Roberts, Zhu, & Kjerulff, 2014). 뿐만 아니라, 자녀가 생후 1개월과 생후 4개월일 때, 영아와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조사한 선행연구에서는 친밀한 관계(예: 배우자, 가족), 친구, 지역사회로부터의 지지를 포함한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가 어머니의 행동 중에서도 특히 영아-어머니 간 상호작용 중 나타나는 애정적 정서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rnic, Greenberg, Ragozin, Robinson, &

Basham, 1983). 특히, 친밀한 관계로부터의 지지를 높게 보고한 어머니일수록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긍정적인 어조로 말하기와 미소 짓기를 더 많이 하였다. 나아가,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고한 부모들은 낮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고한 부모들보다 자녀 양육에 대해 더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었고(Crnic & Greenberg, 1987; Ostberg & Hagekull, 2000), 더 민감하고 반응적인 양육행동을 보였다(Cutrona, 1984; Feldman et al., 2004). 이러한 연구들은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가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을 암시한다.

한편, 사회적 지지가 영아에 대한 애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양육스트레스가 영아에 대한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을 암시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먼저, 사회적 지지는 인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스트레스 사건 또는 상황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대표적인 조절요인으로 밝혀진 바 있다(Cobb, 1976; Cohen & Wills, 1985). 둘째, 연구자들은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발견했다. 상대적으로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쌍생아, 미숙아 및 장애아동의 부모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주, 2014; Lutz et al., 2012). 한 예로, Lutz 등(2012)은 미숙아로 태어난 영아의 어머니 중에서 가족으로부터의 정보적 지지와 도구적 지지가 높은 어머니 집단에서는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영아 간 상호작용의 질을 예측하지 못

한 반면, 가족으로부터의 지지가 낮은 어머니 집단에서는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영아 간 상호작용을 예측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는 어머니의 일상적인 양육스트레스가 심리적·신체적 증상으로 표현되는 것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oeske & Koeske, 1990). 즉,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신체적·심리적 결과 간의 관계가 적절한 사회적 지원이 부족한 어머니에게서만 나타나고, 사회적 지원이 풍부한 어머니에게서는 그러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생후 1개월에서 4개월의 어린 영아들과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영아와의 상호작용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에 의해 조절되고 이로 인해, 양육스트레스가 영아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rnic et al., 1983).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넘어서, 동일한 수준의 양육스트레스 하에서도 부모에게 가용한 사회적 지지의 양에 따라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크기가 달라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의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 또는 완충 역할을 함을 암시한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애착에서도 사회적 지지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애착에 미치는 양육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조절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시 말해, 적절한 사회적 지지를 통해 육아에 필

요한 정보 및 정서적, 물질적, 평가적 자원을 제공받고 있는 어머니는 그렇지 못한 어머니에 비해 어린 영아의 양육에서 오는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에 대한 애착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중요한 실재적 함의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가능성을 검증해본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영아기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에 의해 조절될 가능성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요약하면 이전 연구들은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에 대해 거의 다루지 못했고, 또한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을 다룬 연구들도 단순히 양육스트레스 등과 같은 변인의 관련 여부를 알아보았을 뿐 관련변인 간의 영향력을 조절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들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아

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과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에 대한 기제를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스트레스의 조절변인으로 사회적 지지를 선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목적으로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는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과 각각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가 받는 사회적 지지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영아에 대한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가?

II. 연구방법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

(N = 174)

범위			범위		
N(%)			N(%)		
연령	만 25세 이하	3(1.7)	임신 계획	있었음	100(57.5)
	만 26-30세	60(34.5)		없었음	74(42.5)
	만 31-35세	84(48.3)	임신 원함	배우자만	8(4.6)
	만 36-40세	24(13.8)		어머니만	14(8.0)
	만 41세 이상	3(1.7)		부부 모두	152(87.4)
학력	고졸 이하	13(7.5)	가계 월소득	200만원 이하	88(50.6)
	2-3년제 대학 졸	48(27.6)		201-300만원	49(28.2)
	4년제 대학 졸	88(50.6)		301-400만원	18(10.3)
	대학원 이상	25(14.3)		401-500만원	10(5.7)
조사 당시	유	69(39.7)		501-600만원	5(2.9)
직업	무(휴직 포함)	105(60.3)		601만원 이상	4(2.3)

1. 연구대상

J 지역의 생후 6~8개월 영아를 둔 어머니 1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184부의 설문지가 수거되어 95.8%의 회수율을 보였으나, 이 가운데 부실응답이 포함된 10부를 제외하고 총 174명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은 표 1과 같았다.

2. 연구도구

영아에 대한 애착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은 황현주와 정옥분(2006a)이 국내 실정에 맞게 개발한 도구를 사용해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내 아기를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등의 긍정적 정서 관련 11문항, '나는 아기를 안아주는 것을 좋아한다' 등의 접촉 추구 관련 7문항, '내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아기 생각을 하면 힘이 난다' 등의 자기희생적 온정 관련 10문항, '아기와 떨어져 있으면 아기 생각에 가능한 빨리 아기에게 가려고 한다' 등의 근접 추구 관련 4문항, '내가 어떤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라도 아기의 필요를 우선해 준다' 등의 보호 관련 5문항, '나는 내 아기의 행동이나 반응을 말로 표현해 준다' 등의 결속 관련 6문항, '솔직히 나는 내 아기에 대해 별 느낌이 없다' 등의 냉담 관련 4문항, '아기 양육은 힘들지만 가장 보람 있는 일이다' 등의 기대감 관련 3문항 등 총 8가지 하위요인, 5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항상 그렇다'를 5점으로 하는 5점 리커

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적인 의미의 문항은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각 하위요인의 Cronbach α 계수는 순서대로 .93, .90, .80, .89, .88, .63, .77, .73이며 전체적으로는 .96이었다.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Abidin(1995)이 개발한 부모 양육스트레스 검사 축약형을 이경숙, 정경미, 박진아와 김혜진(2008)이 국내에서 타당화한 한국판 부모 양육스트레스 검사-축약형(Korean Parenting Stress Index Short-Form, K-PSI-SF)을 사용해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나는 부모로서의 책임감에 얽매어 있는 느낌이다' 등의 부모의 고통 관련 12문항, '우리 아기는 기대했던 것보다 나에게 훨씬 적게 웃는다' 등의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관련 12문항, '우리 아기는 대부분의 아기들보다 좀 더 자주 울거나 안달한다' 등의 까다로운 아동(영아) 기질 관련 12문항 등 총 3개 하위요인의 3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항상 그렇다'를 5점으로 하는 5점 리커트 형식의 33문항과 5개 예시 응답 중 선택하는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각 하위요인의 Cronbach α 계수는 순서대로 .88, .88, .78이었으며, 전체적으로는 .93이었다.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박지원(1985)이 개발한 도구를 성영혜(1993)가 보완한 척도를 사용해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그들은 내가 어려운 상

황에 직면했을 때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준다' 등의 정보적 지지 관련 7문항, '그들은 내가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 준다' 등의 정서적 지지 관련 9문항, '그들은 내가 필요로 하는 물건이 있으면 언제라도 빌려 준다' 등의 물질적 지지 관련 4문항, '그들은 내가 한 행동의 옳고 그름을 공정하게 평가해 준다' 등의 평가적 지지 관련 5문항 등 총 4개 하위요인 2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항상 그렇다'를 5점으로 하는 5점 리커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각 하위요인의 Cronbach α 계수는 순서대로 .95, .75, .85, .90, 전체적으로는 .94이었다.

3. 연구절차

J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한 한국애착종단연구(Korea Attachment Longitudinal Study: KALS) 1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영아어머니를 대상으로 C대학교의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거친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2차년도 설문조사에 참여할 의사를 확인한 후 설문지를 우편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발송 및 수거하였다. 회수된 설문지에 대해서는 소정의 사례를 하였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2.0과 AMOS 20.0을 사용해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배

경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빈도와 백분율을,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영아에 대한 애착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양육스트레스가 영아에 대한 애착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서는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였다. 이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가 모두 연속변수이면 기존의 회귀분석보다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할 것을 권장한 Schumacker와 Lomax(2015)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Ping(1996)의 2단계 방식을 사용하여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효과 분석을 위해 단일지표로 상호작용항을 생성하였고, 평균중심화를 통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배제하였다(서영석, 2010). 모형의 적합성은 절대 적합도지수인 GFI와 RMSEA, 증분 적합도지수인 CFI로 평가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영아에 대한 애착 간의 관계

Ping(1996)의 2단계 방식을 사용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든 관측변수의 정상성과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야 한다. 변수의 정상성은 왜도와 첨도로 알아볼 수 있는데, 왜도<2, 첨도<7이면 정규분포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다(Curran, West, & Finch, 1996).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

표 2. 관측변수간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N = 174)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영아에 대한 애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부모의 고통	1														
2. 역기능적 상호작용	.53**	1													
3. 까다로운 영아	.61**	.68**	1												
4. 정보	-.40**	-.44**	-.43**	1											
5. 정서	-.42**	-.47**	-.44**	.79**	1										
6. 물질	-.43**	-.45**	-.42**	.73**	.74**	1									
7. 평가	-.46**	-.46**	-.46**	.86**	.81**	.74**	1								
8. 긍정적 정서	-.27**	-.44**	-.29**	.39**	.36**	.34**	.40**	1							
9. 접촉 추구	-.29**	-.48**	-.35**	.38**	.38**	.29**	.41**	.84**	1						
10. 자기희생적 온정	-.27**	-.39**	-.42**	.36**	.32**	.29**	.35**	.69**	.71**	1					
11. 근접추구	-.16*	-.40**	-.20**	.27**	.24**	.28**	.24**	.55**	.55**	.56**	1				
12. 보호	-.25**	-.47**	-.35**	.37**	.41**	.38**	.40**	.57**	.57**	.63**	.63**	1			
13. 결속	-.17*	-.19**	-.16*	.17*	.14	.12	.11	.28**	.30**	.39**	.32**	.39**	1		
14. 냉담	-.40**	-.54**	-.42**	.30**	.30**	.31**	.34**	.60**	.59**	.58**	.50**	.51**	.58**	1	
15. 기대감	-.33**	-.50**	-.35**	.45**	.38**	.35**	.43**	.58**	.62**	.64**	.60**	.71**	.26**	.59**	1
M	2.71	1.63	1.92	3.73	3.85	3.76	3.74	4.66	4.56	3.87	4.29	4.31	4.43	4.35	4.27
SD	.69	.50	.64	.71	.76	.73	.67	.46	.54	.50	.70	.60	.74	.58	.59
왜도	-.30	1.07	.73	-.67	.64	-.59	-.78	-1.95	-1.31	-.17	-.73	-.71	5.25	-1.04	-.71
첨도	-.27	1.59	.17	1.05	4.38	.67	1.40	5.12	1.55	-.71	-.13	.35	51.23	1.07	.27

* $p < .05$. ** $p < .01$.

이 영아에 대한 애착 가운데 '결속'에 관한 왜도와 첨도가 비정규성을 의미하여 이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이 변수를 제외한 다른 모든 관측변수들은 유의수준 .05~.01의 범위 내에서 -.54~.86의 상관계수를 나타내 각각 정적 또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영아에 대한 애착에 미치는 영향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Ping(1996)의 2단계 방식을 사용한 조절효과 검증에서는 그 1단계로 측정모형의 적합지수를 확인한 후 요인부하량, 분산, 오차분산 및 잠재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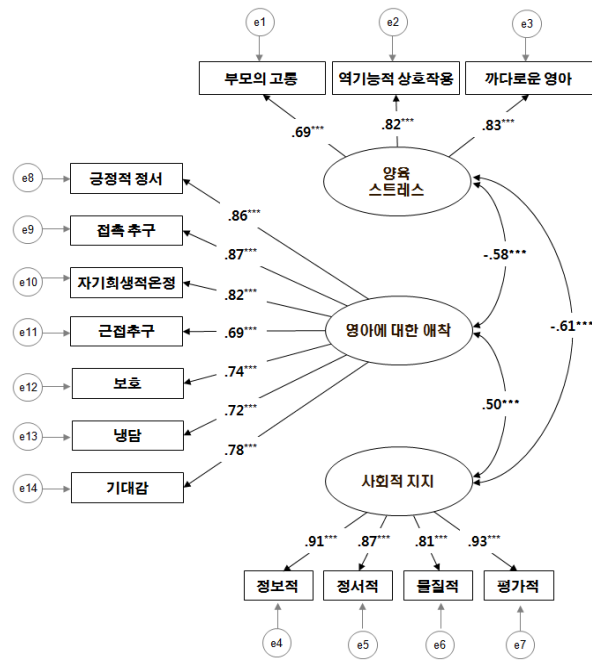


그림 1. 측정모형

*** $p < .001$.

표 3. 측정모형의 계수 추정치

잠재변수	관측변수	B	β	S.E.	t	분산	오차분산
양육 스트레스	→ 부모의 고통	1.00	.69				.03
	→ 역기능적 상호작용	.85	.82	.10	8.77***	.22	.01
	→ 까다로운 영아	1.10	.83	.13	8.80***		.02
사회적 지지	→ 정보적	1.00	.91				.01
	→ 정서적	1.02	.87	.06	16.89***	.42	.02
	→ 물질적	.92	.81	.06	14.40***		.02
	→ 평가적	.97	.93	.05	19.70***		.01
영아에 대한 애착	→ 긍정적 정서	1.00	.86				.03
	→ 접촉 추구	1.18	.87	.08	14.30***		.02
	→ 자기희생적 온정	1.02	.82	.08	12.99***		.02
	→ 근접추구	1.20	.69	.12	10.04***	.25	.02
	→ 보호	1.11	.74	.10	11.23***		.01
	→ 냉담	1.06	.72	.10	10.81***		.01
	→ 기대감	1.14	.78	.10	11.86***		.01

*** $p < .001$.

한다. 먼저, 그림 1과 같이 측정모형의 적합 지수를 살펴본 결과 이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chi^2 = 181.21$, $df = 74$, $GFI = .91$, $CFI = .93$, $RMSEA = .08$). 다음으로,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분산 및 오차분산은 표 3과 같았다. 각 잠재변수에 대한 모든 관측변수의 요인부하량은 .69~.93으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1$). 이는 측정모형의 잠재변수에 대한 각 관측변수들이 모두 타당하게 구성되었음을 의미한다. 1단계의 마지

막으로 잠재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표 4와 같이 모두 유의하였으며, 양육스트레스는 영아에 대한 애착($r = -.58$, $p < .001$) 및 사회적 지지($r = -.61$, $p < .001$)와 각각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영아에 대한 애착 및 사회적 지지는 정적 상관($r = .50$, $p < .001$)을 보였다.

Ping(1996)의 2단계 방식을 사용한 조절효과 검증의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산출한 독립변수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조절변수인 사회적 지지의 분산과 오차 분산을 이용

표 4. 잠재변수 간 공분산과 상관관계

잠재변수경로			공분산	상관관계
양육스트레스	↔	영아에 대한 애착	-.11	-.58***
양육스트레스	↔	사회적 지지	-.19	-.61***
사회적 지지	↔	영아에 대한 애착	.13	.50***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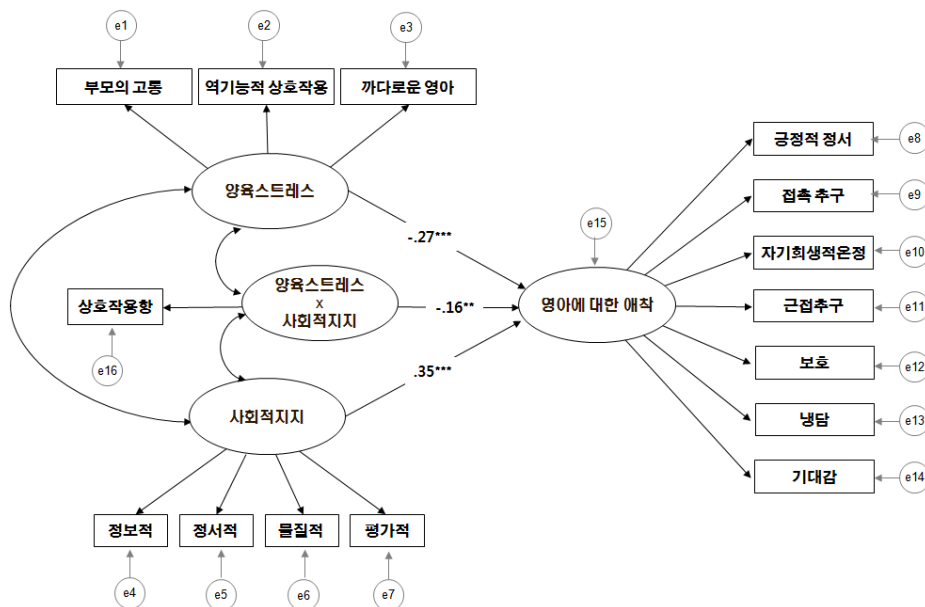


그림 2. 조절모형

** $p < .01$. *** $p < .001$.

표 5. 조절효과 상호작용모델의 계수 추정치

계수경로		B	β	S.E.	t
양육스트레스	→ 영아에 대한 애착	-.19	-.27	.05	-4.29***
사회적 지지	→ 영아에 대한 애착	.22	.35	.05	4.63***
양육스트레스 x 사회적 지지	→ 영아에 대한 애착	-.17	-.16	.02	-1.53**

** $p < .01$. *** $p < .001$.

하여 얻은 상호작용항의 분산값 .109, 상호작용항 지표변수의 요인계수 .685, 상호작용항 지표변수의 오차분산 .025를 이용¹⁾하여 각각 조절모형(그림 2)에 고정시킨 후 조절모형을 검증하고 적합지수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이 조절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chi^2 = 225.63$, $df = 85$, $GFI = .91$, $CFI = .93$, $RMSEA = .08$). 구체적으로, 표 5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영아에 대한 애착에 영향을 미쳤고($\beta = -.27$, $p < .001$), 사회적 지지 역시 영아에 대한 애착에 영향을 미쳤으며($\beta = .35$, $p < .001$),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도 영아에 대한 애착에 영향을 미침으로써($\beta = -.16$, $p < .0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영아에 대한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영아의 발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과 관련된 변인에 대한 탐색의 일환으로,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영아에 대한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앞서 언급한 연구결과를 선행연구와 관련지어 그 시사점 및 결론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과 각각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영아에 대한 애착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영아에 대한 애착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양육스트레스가 적은 어머니일수록 영아에 대한 애착 정도가 높고,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어머니일수록 영아에 대한 애착 정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양육스트레스와 애착간의 부적 관계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영·유아기 자녀에 대한 애착 간의 부적 관계를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들(노지영, 황혜신,

1) $Var(XZ) = Var(X)Var(Z) + Cov(X, Z)^2$,
 $\lambda_X \lambda_Z = (\beta_{X1} + \beta_{X2} + \dots + \beta_{Xn})n(X)(\beta_{Z1} + \beta_{Z2} + \dots + \beta_{Zn})/n(Z)$,
 $\Theta_{XZ} = \lambda_X^2 Var(X)\Theta_Z + \lambda_Z^2 Var(Z)\Theta_X + \Theta_X \Theta_Z$
(Var = 분산, X = 주효과변인, Z = 조절효과변인, Cov = 공분산, XZ = 상호작용항, λ = 요인계수, n=잠재변인 개수, Θ =오차분산)

2012; 장영애, 박정희, 2009)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양육스트레스는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한 양육행동과(Crnic & Low, 2002; Crnic et al., 1983; Feldman et al., 2004), 정서적 가용성(McMahon, & Meins, 2012) 및 어머니-자녀 간 친밀감(Harmeyer et al., 2016)과도 각각 부적 관계가 있음을 보인 선행연구 결과들과도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어린 영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 수행에 대해 느끼는 스트레스와 영아에 대해 느끼는 애착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시켜주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부모 역할로의 원활한 전이와 부모역할에 대한 스트레스를 적게 느끼는 것이 부모와 자녀에 있어서 긍정적인 결과에 매우 중요하며(Deater-Deckard, 1998) 부모의 일상적 양육 스트레스는 부모의 민감성, 반응성, 애정적 상호작용과 같은 양육 과정의 질적인 측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Crnic & Low, 2002).

한편, 본 연구에서 나타난 사회적 지지와 영아에 대한 애착 간의 정적 상관관계는, 배우자의 지지가 영아기 자녀에 대한 애착과 정적 상관이 있으며(이해영, 권민균, 2007; 황현주, 정옥분, 2006b; 황현주, 2012),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지지 또한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과 정적 상관이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박희진, 문혁준, 2013)와 일치한다. 이러한 관계는 사회적 지지가 영아와의 상호작용에서 어머니가 표현하는 애정적 정서(Crnic et al., 1983), 어머니-영아 간의 결속감(Bicking Kinsey et al., 2014),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하고 반응적인 양육행동(Cutrona, 1984;

Feldman et al., 2004)을 긍정적으로 강화한다는 연구결과들과 유사하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영아기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적 친밀감 및 결속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지지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는 각각 영아기 자녀에 대해 어머니가 느끼는 정서적 친밀감 및 결속감에 상반되는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중요한 목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영아에 대한 애착 간의 관계를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가 조절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연구 결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이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양육스트레스가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적 지지가 많을수록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전반적인 스트레스가 영아의 요구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성 및 애정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에 의해 조절된다는 선행연구 결과(Crnic et al., 1983)와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장애아, 미숙아, 쌍생아의 어머니들에 관한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높은 수준의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더라도 사회적 지지의 정도에 따라서 영아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달라지고(김현주, 2014; Burchinal, Follmer, & Bryant, 1996; Lutz et al., 2012; Thompson, 1995), 동일한 수준의 일상적 양육스트레스 하에서도 스트레스가 심리적 또는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사회적 지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연

구결과(Koeske & Koeske, 1990)와도 맥을 같이 한다.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가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중요한 이론적, 실제적 함의를 가진다. 이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생애의 여러 스트레스 사건의 부정적 영향이 사회적 지지에 의해 조절된다는 Cobb(1976)의 주장 및 연구 결과가 어머니가 어린 영아를 양육하는 데서 느끼는 일상적 양육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에도 일반화하여 적용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모든 부모가 상당 수준의 양육스트레스를 공통적으로 경험하지만, 그러한 스트레스가 자녀에 대한 정서적 결속감에 똑같이 손상을 입히지는 않는 현상을 설명한다. 즉, 어머니에게 가용한 사회적 지지의 양에 따라 그 부정적 영향이 증폭되거나 완화됨을 암시한다. 나아가, 본 연구 결과는 신생아를 지난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애착과 관련해,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함을 나타낸다.

본 연구 결과는 또한 실제적 함의를 갖는다. 부모 역할의 수행은 자녀에 대한 책임과 부담감을 동반하기 때문에 모든 부모들은 상당 수준의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고(Crnic & Greenberg, 1987), 특히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는 발달 중인 영아와의 관계에서 일상적으로 도전과 요구에 직면한다. 더욱이, 개별 영아의 특성, 발달 과정의 복잡성, 그리고 계속적인 돌봄을 필요로 하는 특성으로 인해 영아 양육은 더욱 복잡하고 어려워진다(Crnic & Low, 2002). 여기에,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하는 어머니가 많고 서로 다른 가치가 혼재된 육

아 정보와 조언이 넘쳐나는 현대사회의 부모들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의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영아기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심리적 친밀감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그 결과 아동의 건강한 발달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그러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어머니에게 필요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일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영아를 양육하는 어머니에게 육아와 관련된 신뢰할만한 과학적,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물질적 도움을 제공하며, 격려, 공감의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어머니의 육아 행동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지역사회와 국가 수준의 프로그램 및 정책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영아를 양육하는 어머니가 배우자, 가족 등 친밀한 관계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도 얻을 수 있도록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지니는 몇 가지 제한점을 제시하면서 후속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함에 있어서 제공되는 지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보, 물질, 정서, 평가적 지지로 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여 전반적인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검증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의 영향을 조절하는 데 더 효과적인지, 사회적 지지의 내용 및 원천에 따른 조절효과의 차이를 살펴보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는 한계 있었다. 특히, 사회적 지지를 그 원천에 따라 친밀한 관계(예, 배우자), 우정 관계, 지역사회로부터의 지지 등으로 나

누어 살펴본 몇몇 선행연구에서, 우정관계로부터의 지지보다는 친밀한 관계 및 지역사회로부터의 지지가 어머니의 스트레스의 영향을 완화한다고 보고된 점(Crnic et al., 1983)을 고려할 때 사회적 지지의 효과에 대한 보다 세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같이 전통적인 사회에는 없던 새로운 종류의 사회적 지지 원천에 대한 연구도 필요해 보인다. 둘째, 이 연구에서 검증한 조절모형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고된 두 변인인 사회적 지지와 양육스트레스만을 포함했다. 그러나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 연구가 이제 시작 단계에 있음을 고려할 때, 실제로 영아에 대한 애착 형성은 다른 여러 잠재변인에 의해 중요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어머니의 기질 및 정서성, 어머니 자신의 모에 대한 애착, 결혼만족도, 영아의 기질 등 이미 국내연구에서 밝혀진 관련변인들뿐 아니라, 어머니의 사회적 정보처리 양식 등 인지적 측면 역시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Leerkes et al., 2015). 또한, 어머니가 직장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및 업무부담, 직장 내 영아보육시설 운영 및 육아지원제도가 영아에 대한 애착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 형성에 대한 보다 다면적인 모델 설정과 이해를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영아를 양육하는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감 형성에 끼치는 양육스트레스의 부정

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음을 보이며,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과 관련된 주요 변인 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애착 형성의 기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김현주 (2014).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장애아동 학대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재활복지*, 18(1), 113-134.
- 노지영, 황혜신 (201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부모역할만족도가 0-3세 자녀와의 애착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지*, 21(1), 27-40.
-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희진, 문혁준 (2013). 영아를 둔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애착, 우울, 사회적 지지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20(3), 81-98.
- 서영석 (2010). 상담심리 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개념적 구분 및 자료 분석 시 고려사항.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147-1168.
- 성영혜 (1993). 부모의 사회적 지지 체계가 아동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경숙, 정경미, 박진아, 김혜진 (2008). 한국판 부모 양육스트레스 검사-축약형 신뢰

- 도 및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3), 363-377.
- 이해영, 권민균 (2007). 어머니 관련 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애착. 한국사회과학연구, 26, 329-344.
- 장영애, 박정희 (2009). 어머니 우울 및 양육 스트레스가 어머니-유아 간 애착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7(2), 213-232.
- 황현주 (2012). 영아에 대한 아버지애착 관련 변인. 한국영유아보육학, 73, 81-99.
- 황현주, 정옥분 (2006a).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 인간발달연구, 13(3), 57-78.
- 황현주, 정옥분 (2006b).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과 관련 변인. 인간발달연구, 13(4), 95-115.
- Abidin, R.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 298-301.
- Abidin, R. R. (1995). *Parenting Stress Index (PSI) manual* (3rd ed.)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Inc.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N. (2015).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New York, NY: Psychology Press.
- Anthony, L. G., Anthony, B. J., Glanville, D. N., Naiman, D. Q., Waanders, C., & Shaffer, S. (2005).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stress, parenting behavior and preschoolers' social competence and behavior problems in the classroom.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4(2), 133-154.
- Bicking Kinsey, C., Baptiste-Roberts, K., Zhu, J., & Kjerulff, K. H. (2014). Birth-related, psychosocial, and emotional correlates of positive maternal-infant bonding in a cohort of first-time mothers. *Midwifery*, 30, e188-e194.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 Braungart-Rieker, J. M., Garwood, M. M., Powers, B. P., & Wang, X. (2001). Parental sensitivity, infant affect, and affect regulation: Predictors of later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72(1), 252-270.
- Bretherton, I. (1985). Attachment theory: Retrospect and prospect.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1-2, serial no. 209), 3-35.
- Burchinal, M., Follmer, A., & Bryant, D. (1996). The relations of maternal support and family structure with maternal responsiveness and child outcomes among African-American families, *Developmental Psychology*, 32(6), 1073-1083.
- Çinar, I. Ö., & Öztürk, A. (2014). The effect of planned baby care education given to primiparous mothers on maternal attachment and self-confidence levels.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35, 320-333.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 300-314.
-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357.
- Coll, C. G., Vohr, B. R., Hoffman, J., & Oh, W. (1986). Maternal and environmental factors affecting developmental outcome of infants of adolescent mothers. *Journal of Developmental and Behavioral Pediatrics*, 7(4), 230-236.
- Crnic, K. A., Gaze, C., & Hoffman, C. (2005). Cumulative parenting stress across the preschool period: Relations to maternal parenting and child behavior at age 5.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4(2), 117-132.
- Crnic, K. A., & Greenberg, M. (1987). Maternal stress, social support, and coping: Influences on early mother-child relationships. In C. Boukydis (Ed.), *Research on support for parents and infants in the post-natal period* (pp. 25-40). Norwood, NJ: Ablex.
- Crnic, K. A., Greenberg, M. T., Ragozin, A. S., Robinson, N. M., & Basham, R. B. (1983). Effects of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mothers and premature and full-term infants. *Child Development*, 54(1), 209-217.
- Crnic, K. A., & Low, C. (2002). Everyday stresses and parenting.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Vol. 5. Practical issues in parenting* (pp. 243-267).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utrona, C. E. (1984). Social support and stress in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3(4), 378-390.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 Deater-Deckard, K. (1998). Parenting stress and child adjustment: Some old hypotheses and new questions.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5(3), 314-332.
- De Wolff, M. S., & Van IJzendoorn, M. H. (1997). Sensitivity and attachment: A meta-analysis on parental antecedents of infant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68(4), 571-591.
- Ding, Y., Xu, X., Wang, Z., Li, H., & Wang, W. (2012). Study of mother-infant attachment patterns and influence factors in Shanghai. *Early Human Development*, 99, 295-300.
- Feldman, R. (2012). Oxytocin and social affiliation in humans. *Hormones and Behavior*, 61, 380-391.
- Feldman, R., Eidelman, A. I., & Rotenberg, N. (2004). Parenting stress, infant emotion regulation, maternal sensitivity, and the cognitive development of triplets: A model for parent and child influences in a unique ecology. *Child Development*, 75(6), 1774-1791.
- Feldman, R., Weller, A., Leckman, J. F., Kvint, J., & Eidelman, A. I. (1999). The nature of the mother's tie to her infant: Maternal bonding under conditions of proximity, separation, and potential los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0(6), 929-940.
- Gharaibeh, M. K., & Hamlan, A. M. (2011).

- Factors influencing maternal attachment of first-time Jordanian mothers. *Journal of Research in Nursing*, 17(3), 289-303.
- Harmeyer, E., Ispa, J. M., Palermo, F., & Carlo, G. (2016). Predicting self-regulation and vocabulary and academic skills at kindergarten entry: The roles of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mother-child closenes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37(4), 153-164.
- Hinde, R. A. (1979). *Towards understanding relationships*. London: Academic Press.
- Koeske, G., & Koeske, R. (1990). The buffer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parental stres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0, 440-451.
- Leckman, J. F., Mayes, L. C., Feldman, R., Evans, D. W., King, R. A., & Cohen, D. J. (1999). Early parental preoccupations and behaviors and their possible relationship to the symptoms of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100, 1-26.
- Leerkes, E. M., Supple, A. J., O'Brien, M., Calkins, S. D., Haltigan, J. D., & Wong, M. S. (2015). Antecedents of maternal sensitivity during distressing tasks: Integrating attachment,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and psychobiological perspectives. *Child Development*, 86(1), 94-111.
- Lutz, K. F., Burnson, C., Hane, A., Samuelson, A., Maleck, S., & Poehlmann, J. (2012). Parenting stress, social support, and mother-child interactions in families of multiple and singleton preterm toddlers. *Family Relations*, 61(4), 642-656.
- McMahon, C., & Meins, E. (2012). Mind-mindedness, parenting stress, and emotional availability in mothers of preschooler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7(2), 245-252.
- Moehler, E., Brunner, R., Wiebel, A., Reck, C., & Resch, F. (2006). Maternal depressive symptoms in the postnatal period are associated with long-term impairment of mother-child bonding. *Archives of Women's Mental Health*, 9, 273-278.
- Ostberg, M., & Hagekull, B. (2000). A structural modeling approach to the understanding of parenting stres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9(4), 615-625.
- Ping, R. A. (1996). Latent variable interaction and quadratic effect estimation: A two-step technique using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9(1), 166-175.
- Rodriguez, C., & Green, A. (1997). Parenting stress and anger expression as predictors of child abuse potential. *Child Abuse and Neglect*, 21, 367-377.
- Schumacker, R. E., & Lomax, R. G. (2015). *A beginners' guide to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4thed.).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tevenson-Hinde, J. (1990). Attachment within family systems: An overview.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11(3), 218-227.
- Thompson, R. A. (1995). *Preventing child maltreatment through social support*. Thousand Oaks, CA: Sage.

- van den Boom, D. (2001). First attachments: Theory and research. In G. Bremner & A. Fogel (Eds.), *Blackwell handbook of infant development* (pp. 296-325). Malden, Massachusetts: Blackwell Publishers.
- Wittkowski, A., Wieck, A., & Mann, S. (2007). An evaluation of two bonding questionnaires: A comparison of the Mother-to-Infant Bonding Scale with the Postpartum Bonding Questionnaire in a sample of primiparous mothers. *Archives of Women's Mental Health*, 10(4), 171-175.
- Yoshida, K., Yamashita, H., Conroy, S., Marks, M., & Kumar, C. (2012). A Japanese version of Mother-to-Infant Bonding Scale: Factor structure, longitudinal changes and links with maternal mood during the early postnatal period in Japanese mothers. *Archives of Women's Mental Health*, 15(5), 343-352.

1 차원고접수 : 2016. 10. 09.

수정원고접수 : 2016. 11. 14.

최종게재결정 : 2016. 12. 02.

Parenting Stress and Maternal Attachment to Infants: Examining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Chae, Jin-Young

Dept. of Child Studie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Park, Youjeong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tested the possibility that social support moderated the impact of mothers' parenting stress on their attachment to their infants. One hundred and seventy four mothers raising six- to eight-month-old infants in J province in Korea completed questionnaires regarding their parenting stress, social support, and attachment to their infant. Data were analyzed using Pearson correlations and a structural modeling analysis based on Ping's (1996) two-step method.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social support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ir attachment to the infants. Specifically, mothers' parenting stress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maternal attachment to the infant, whereas social support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maternal attachment to infant. Furthermore, the impact of maternal parenting stress on the level of attachment to their infant was moderated by social support. These results suggest that social support for mothers with infants can alleviate the negative influence of parenting stress on the psychological bond between the mothers and their children.

Keywords: parenting stress, social support, maternal attachment to infant, moderating effect